[카드뉴스] 키워드로 본 금융IT Issue 3월 #2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대에는 누구나 새로운 세상을 항해할 자신감과 열정만 있다면 어떠한 견고한 자물쇠도 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항해가 안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목숨을 위협받지 않을 탄탄한 법과 제도는 항해자 옆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토스증권, 참 쉬운 주식 항해 '닻' 올렸다 ❶

기존 증권사 문법에서 벗어나 모바일에 최적화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강점**으로 초보 투자자의 심장을 '저격'한 **토스증권이 3월 15일 일반에 공식 공개.**
지난 2월 중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MTS서비스를 오픈해온 토스증권은 **월 이용자 100만명 확보를 목표로 업계 1위로 도약 확신.**

숫자로 본 토스증권은 순항 중?

64 만명	28 만명	13 만명	68 %
사전 이용 신청자 수	현재 회원 가입자 수	계좌 개설 고객 수	회원 중 2030 세대 비율

"올해 목표는 원장 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서비스 플랫폼을 분산화하여 고객 수와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오창훈 토스증권 CTO
(전자신문 인터뷰 2021. 3. 15.)

돋보기 월 이용자 100만명 확보 근자감?

리테일 업계 1위 키움증권의 월간활성이용자(MAU) 100만명에 맞춰 토스증권도 목표를 동일하게 상정. '분산 아키텍처'를 채택해 차세대 없는 증권사 향해 전진. 토스 측은 트래픽은 150만명 대비 구축하였고, 가용성 범위는 300만명까지 가능하다는 설명.

토스증권, 참 쉬운 주식 항해 '닻' 올렸다 ❷

지난 2월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는 **주식 시장 진입 고객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시장 개척 전략을 발표. **주요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필요한 기능 구현에 초점.**

toss securities

토스증권 MTS 장점 vs 단점

장점		단점
직관적이고 편리한 화면 구성 검색창에 기업의 제품명을 입력하면 종목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 뉴스 검색 가능. 토스증권은 국내 2,200여개 상장사를 직접 분석해 토스 인베스트먼트 카테고리 스탠다드(TICS) 분류체계 선보임. 234개 업종 세분화해 MTS 통해 관련 종목 찾을 수 있게 가이드.	VS	**다양한 차트, 수급 데이터 없음** 전문투자자 또는 단기 매매를 통해 수익 추구하는 투자자들 외면 전망.
모바일 최적화 형태 관심종목이나 보유 종목의 급등락 등 변동 사항을 '앱 푸시'를 통해 즉시 투자자에게 전달. 매매 통계 기반한 투자 정보와 '영업이익률TOP100' 등 재무제표 기반 정보도 모바일 최적화 형태로 제공.		**리츠(REITs), ETF, SPAC 등 거래 안됨**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 역시 막혀 있고, 심도 있는 리서치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은 자료 니즈가 큰 전문투자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음.
그밖에 기존 토스의 다른 기능(금융 등)과 연계, 편하고 쉬운 리서치 자료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의결, "안전성≥편의성" ❶

"본인확인기관 역할이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 안전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1. 3. 9. 전체회의 중에서)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3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 향후 3사는 **자사 서비스 가입 및 탈퇴나 비밀번호 변경 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별도 이용**해야 함.



본인확인기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으로써 연계정보(CI)를 제공해 본인확인을 진행하는 곳. 패스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

본인확인기관 결격 사유 (자료: 방통위)

NAVER	kakao	toss
92개 중 22개 개선 필요, 부적합 1개(본인확인정보 유일성)	92개 중 17개 개선 필요, 부적합 1개(본인확인정보 유일성)	92개 중 17개 개선 필요, 부적합 2개 (본인확인정보 유일성,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 주요 이슈 본인확인정보 유일성 부적합!

3사 모두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방통위는 기존에 비실명 계정으로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함에 있어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 이용 가능성 존재 지적.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의결, "안전성≥편의성" ❷

방통위 발표 이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재심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본격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민간 인증서 시장에서 1라운드 승자는 카카오가 기록.** 하지만 **여전히 옛 공인인증서 사용률이 90% 육박.**

홈택스에서 사용된 인증서 이용건수

전체: 8,107만건

1	옛 공인인증서	(공동: 7,194건 / 금융: 88만건)	4	KB국민은행	65만건
2	카카오 간편인증	586만건	2	페이코	586만건
3	통신3사 패스앱	240만건	3	삼성패스	9만건

한편, 카카오는 **따로 운영하던 카카오 인증서와 카카오페이 인증서 제휴처를 공유**하면서 인증서 시장 굳히기 시작. 이번 계약을 통해 **카카오 제휴처는 3곳에서 200곳으로 확대.**

인증서 통합으로 1위 굳히는 카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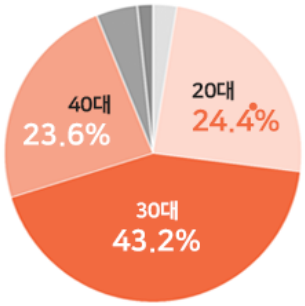
구분	카카오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제휴처	3곳	200여 곳
출시	2020년 12월	2016년 6월
특징	카카오 지갑 내 서비스	증권거래 등 카카오페이 사용 시 연동

커피 한 잔 대신 이젠 '주식 상품권'

모바일기기에 친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금융상품권'이 좋은 반응**을 얻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상품 출시.**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로서는 고객 유입과 유보 효과를 기대 가능.**

스탁콘 (해외 주식 상품권) 이용자

자료 : 신한금융투자



미성년자 : 2.6%
20대 : 24.4%
30대 : 43.2%
40대 : 23.6%
50대 : 4.5%
60대 이상 : 1.7%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상품권 '스탁콘'은 지난 12월 24일 출시 이후 **2만여 개 판매.**
현재 다루는 종목은 **테슬라, 애플, 넷플릭스, 스타박스로, 스타벅스가 1만 3263건으로 가장 많이 매수.**

온라인 금융상품권 해외 주식 투자 비중 및 종목 ▸▸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3월 국내 최초 출시, **상품권 일련번호를 한국투자증권 MTS에 등록하면 액면가만큼의 금액이 금융상품계좌에 충전.** 지난 3월 8일부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뿐만 아니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쇼핑몰에서도 판매.** 그밖에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온라인 금융상품권 출시 예정.**

핀테크 기업&금융 소비자, 상호 신뢰 높여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1년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참여 기업,
오픈뱅킹 이용신청 기업 외에 온투업 등록(예정) 기업도 추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핀테크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❶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
❷ 서비스 취약점 점검

→ 두 종류의 점검에 대하여 점검 비용의 **75%** 지원

- **각 보안점검 비용의 75% 지원하고 대상 기업은 25% 자부담**
-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 지원**
  : 핀테크 기업이 기본적인 보안관리체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안대책을 관리·물리·기술적 보안점검 항목을 바탕으로 점검
-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 지원**
  : 핀테크 서비스에 대하여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인증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점검

본 사업은 **핀테크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완화시켜 금융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효과.
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접수 및 세부 내용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